



여 · 휴 · 만 · 만

지하 생활자의 수기



여 · 휴 · 만 · 만



어젯밤, 무서운 꿈을 꾸었다.
아주 깊은 곳으로 한없이 추락하는 꿈이었다.
그곳은 꿩새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무언지 모를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친구의 흔적을 찾아서—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깊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아무도 오지 않고 추위만 문을 두드렸다.

-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
한없는 미로를 지나면 하늘이 보이는 창이 있겠지.
그곳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휴식 같은 내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 테지.

그 작고 음험한 공간에서 나와 끝없이 걸었지만
온통 벽과 미로뿐, 기다리던 창과 그녀들은 없고 —

날 알리고 싶어! 난 여기 있어!!
이것은 나의 외침, 나의 독백.

글 쓰는 순서

여유 만만 자료집을 내면서	2
연세에도 여휴가 있더라?	3
여휴만만, 그러고보니 약 1년	4
학내여휴, 이상무?	7
여학생 휴게실은 왜 표류하고 있을까	14
아니 이런 말이 있니!!	16
똑똑, 여휴 안에 누가 있나요?	17
여휴 그 작은 섬터	18
서화라는 망망대해 ... 나는 나의 작은 섬을 발견했다	20
인터뷰 - 그녀들에게서 듣다	22
왜 '여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냐고! 진짜로 궁금해? 내게 알려주대~ 짜잔~~~~	24
확장실에서 책더금 먹더금	26
명량여 명량여	28
당신에게 여휴를 드립니다	29
쭈기 고양이를 무는 방법	30
옆동네 여휴어이	33
'여휴 만만의 습작 담백 화끈 토크!!' 여휴를 파헤쳐랏~	37
편·집·후·기	40
여휴만만 권리 장전	41

익숙한 질문의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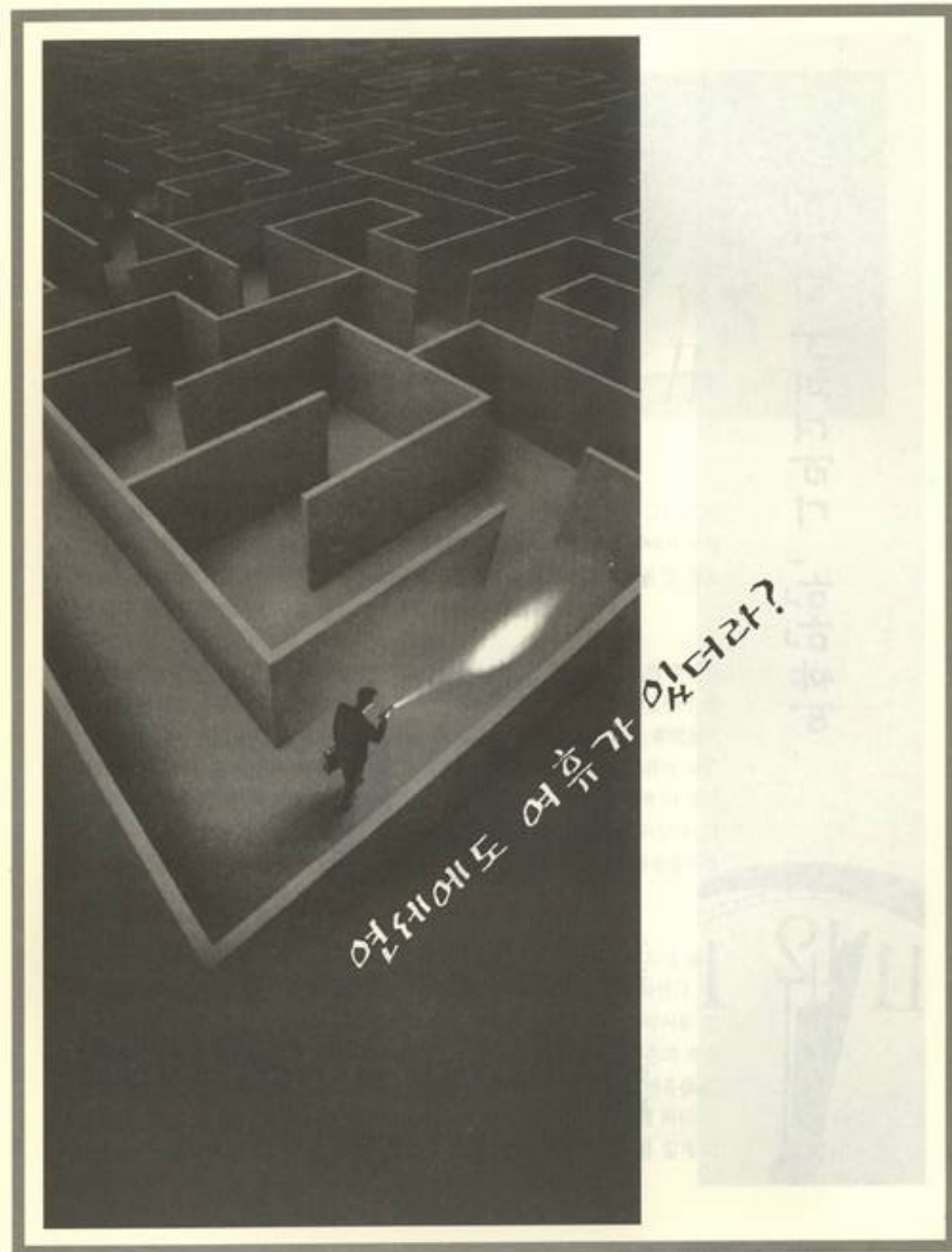


우리는 늘 무언가 큰 것만을 쫓아가는 것에 익숙해 있다. 그것이 어렵
히 더 좋은 것이라니,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이라니.....
그러나 가만히 눈과 귀를 막고 내 속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보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즐거운 선택인가?

한 달마다 몇 권씩의 자료집이나 소식지가 쏟아져 나온다. 모두들 자신
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라고
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친다. 왜
그렇까? 실질적인 정보가 아니어서? 친근한 느낌이 아니어서? 자신과 관
련 없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여유롭지 못해서??

우리는 여기, 또 한 권의 자료집을 내놓는다. 사람들이 좀더 여학생 휴
게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우리들의,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부터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색깔 강한 주장은 하지 않는다. 여성
주의를 세뇌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괴롭히지도 않
겠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에겐 지겹도록 익숙한 것이,
화날 정도로 명확히 보이는 것들이-사실 난 그다지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같아 괴롭다-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
실이다. 우리의 자료집은 이 괴리에서 시작한다. 여학생 휴게실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리 모음과 새로운 형식, 치밀한 구성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왜 필요한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지" 처음
의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 자료집은 그 해답을 찾는 우리 나름의 시
험지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지려고 한다. 당신들의 생
각은 어떠시냐고.....



연세에도 여휴가 있더라?



여휴만만은 여학생휴게실을 정말 여학생 휴게실다운 공간으로 만들어가
고자 2001년 5월 14일(로 추정되는) 총여학생회의 일상정치국(일상의 불
편함을 여성주의적으로 고쳐나가는 일을 담당)을 주축으로 결성되었다. 학
내 여학생들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지만 변하지 않은 채 '남녀공학'만을 강
조하는 학교측에 개선을 요구해나감과 동시에 학생회와 함께 해나갈 수 있
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여성문화공간으로의 발바꿈을 목표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고 있으며
이제 여휴만만은 여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이들과 사람들과 이야기가 모이는 여휴로 만들어가고 싶다.

여휴만만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들어보시라~
베일을 벗고 지하실에서 나오다.

1. '여휴만만'으로 모이다



눈 큰 한 친구를 총여학생회실에서 만나 여휴를 바꿀 프로젝트를 꾸릴
생각이라 했더니 함께 하기를 청하여 문대 여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
구까지 도합 세명에서 같이 여휴만만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첫 만남은 얼기설기 ^^; 우연처럼 쉽고 빠르게 만들어졌고 여휴
만만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포스터며 여휴를 알리는 스티커를 만들었다.
보셨나 몰라~

암튼 그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고 방학이 왔다.

2. 여휴만만을 한다는 것은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뒤에 대답 중에 무모한 자신감
들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진을 빼는 지루하고 별 진전
은 없는데도 초조하게 시간은 가는 여름 방학이었다. 방학
하기 전엔가 중간에 총여학생회를 하는 한 친구, 과이가 들
어왔다. 느슨하게 진행되는 작업들이며 소풍불량의 학생회
와 학교를 만나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데 얼마간 다들 기운 없었고 또 얼마간은 이
런 저런 일들로.. 여휴만만은 뭘 하는 거지, 뭘 해야 하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기타 등등,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휴~



그 후로는 여휴가 있는 단대(문대, 상대, 공대, 이과대, 사회대, 의대, 그리고 중
앙도서관, 학생회관)와의 만남을 통해 단대의 실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모색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방학기간이라 각 단대와와의 접촉은 쉽지 않았고 8월 말 정도
에 단대 학생회를 만나 상황을 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방학기간 중에 일어난 일 중 가장 큰 사건 하나는 중앙도서관 6층 여휴의 존폐를
둘러싼 긴장과 이를 지키고 해결하기 위한 일이었다. 우선 몇 차례 말하였듯이 중
도에 사물함이 500개 정도 휴게실에 들어오게 되면서 흡연실로 쓰이던 휴게실이
사라지게 줄어들게 되면서 여학생휴게실을 없애거나 줄이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
다. 학생복지위원회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 책갈피를 통해 이 소식
을 뒤늦게 듣게 되었고 학자추와 함께 중도관리과 주임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그
자리를 통해 중도 여휴를 좁히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실을 남녀공학흡연실
로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듣게 되었다.

중도 여휴를 줄이는 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
고 결국 여휴 공간을 줄이되 남성과 여성의 흡연실로 분리해주기를 요구하였다. 벽
을 설치하는 것은 공간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칸막이를 설
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 후 중도 여휴는 도색작업이 이루어지고 기존의 소파
를 그대로 쓰고 있으며 흡연실은 남녀공학으로 하되 여자 흡연실의 문은 여휴를 통
해 들어가도록 되었다. 움직일 수 있는 얇은 목재로 된 칸막이가 설치됨에 따라 그
안에서 여성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 공간만의 특별한 의미를 잃게 되
었다.

또 여휴만만은 9월 24, 25, 26, 27일 사흘간 열린 여성제 기간동안 '민주광장으로 나온 여휴'라는 주제로 설치물을 전시하였다. 이것도 함 보셨는지??

행사 소개 간판부터 여휴를 둘러싼 음모론 Y파일, '내가 바라는 여휴', '여휴만만의 셀프인터뷰', 여휴만만의 '여휴 권리 장전', 여휴 이름 공모, 그리고 무료로 탐폰을 나눠주는 등의 내용으로 꾸며졌었다. (민주광장앞에 노란 천을 두르고 있는 그 ㄷ 모양의 설치물 말이죠~) 여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부터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여휴만만을 알리는 의미 등을 두루 담은 기획으로 한 행사였는데, 생각만큼 큰 호응은 얻지를 못하였다.

크으~ 후~

중앙도서관의 여휴를 (흡연실은 부끄럽지만) 지킨 일, 사회대 여휴의 개선-을 사무실에 얘기하고 어렵게 학생회와 바뀌가고 있는 중, 문대 여휴의 고군분투- 천장이 낮아지고 긴 테이블과 의자가 들어오게 됨, 상대 학생회와의 반가운 연락- 여학생휴게실자치위원회가 꾸려지고 학생회와 사무실이 함께 바꾸어나가고 있는 중, 이과대 여휴-가 바뀌고 자치공간의 문제와 함께 예전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려워져 그냥 거기있기로 낙찰 등등, 조금씩 여휴만만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학관-(공간구성을 고심 중)도 달라질 거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러나 여전히 지켜볼 일이다.

*구체적인 여휴의 상황 변화 과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3. 2001.12.00 여휴만만으로 서 있다

우리는 한 명의 멤버교체도 없이 2001년 12월을 맞고 있다.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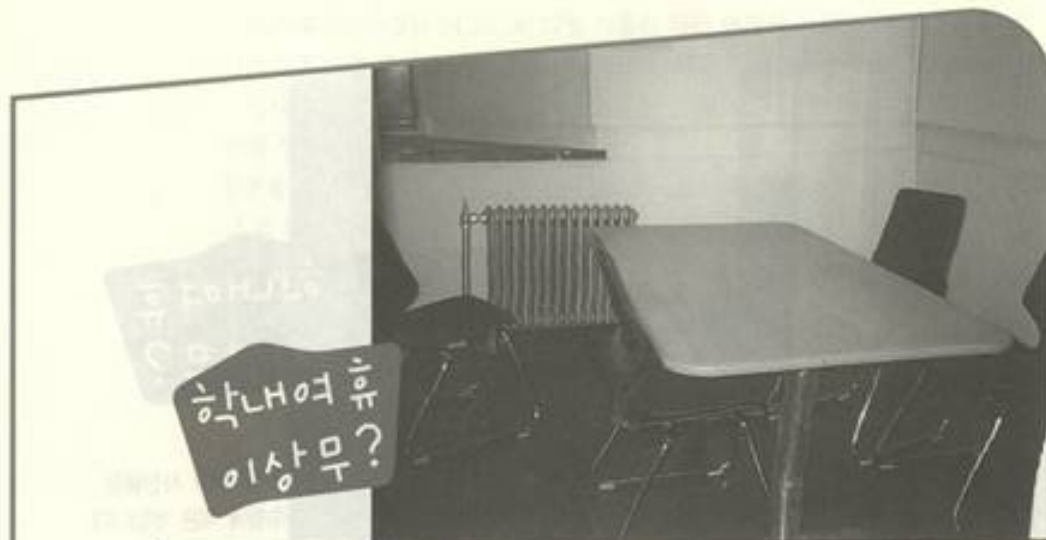
이제 각자 조금씩 예전의(예전이라 한다) 자신들의 원기 왕성함을 추억하며 지금 놓치면 안될 일들을 챙기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어떻게 여휴만만을 가져갈지 나름의 생각들이 있겠지. 활동사와 함께 여휴만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과정을 함께 다뤘다. 처음엔 어리버리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막 했다. 그러곤 요령이 생겼고 관록이랄까 뭐 배짱이라면 배짱이고 경험자로서의 여유도 보이고.



문과대 여학생 휴게실 《여유샘》

문과대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복사실 앞에 어두컴컴한 복도를 사이에 두고 여유샘이란 이름의 여학생 휴게실이 있다. 한달 전만 해도 제대로 된 명패조차 없어 아는 사람만 아는 공간이었지만, 11월 현재는 지난 여성제때 마련한 여휴 이름 공모를 통해 여유샘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몇 주전에 들여놓은 세미나용 책상과 8개의 의자가 가운데 놓여 있고 주변에 수면을 취하고 싶은 학생들의 위하여 소파 2개가 있다. 아직은 아무 것도 꽃혀 있지 않은 책꽂이가 있고 커피잔과 커피가 있지만 뜨거운 물을 구할 수 없고 사용자들이 아직 스스로 치우는 것에 익숙치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벽은 하얀색으로 새로 페인트 칠이 되어 있고 전기 공사도 마무리가 되었다. 난방용으로 히터가 들어와 있어 지하의 추위를 조금은 몰아낼 수 있다. 조명상태는 양호하며 8개 중 2개의 형광등이 나가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 점검표를 부착해 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그러나 아직 사용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들이 여기 저기 보인다. 특히 이곳은 지하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으면 먼지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곳을 맡아 정리해주는 아주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치워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음식 쓰레기나 신문은 물론이고 여유샘을 흡연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담배꽂이를 버리는 것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환풍기나 공기 청정기가 필요하다. 게시판이 있어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적기도 하고 날적이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사회대 여학생 휴게실

사회대 1층에 자리잡고 있는 여학생 휴게실은 다른 여학생휴게실과 마찬가지로 관리의 주체가 없었다. 또한 자치 공간이 아닌 단대 사무실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회 모두가 방치해둔 상태였다. 그로 인하여 사용하는 여학생들은 많았지만 청소상태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사회대 여휴는 이제까지 2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2곳 모두 커다란 책상과 의자 4개(총 8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다지 좁은 공간은 아니었지만 큰 책상으로 인해서 총 수용 인원이 최대 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비품도 책상과 의자가 전부이고 소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휴게실의 본래 기능인 쉬는 기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여휴만만'과 'beyond'가 사회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방학중에 사회대 학생회와 함께 개선에 들어갔다.

안쪽의 공간은 보다 편히 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소파를 들여놓고 조용히 쉴 수 있게 만들었다. 소파를 들여 놓음으로 하여서 많은 여학우들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게 되었다. 바깥쪽 공간은 밥을 먹거나 떠들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내규를 만들기 위해 설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사회대 여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생회의 무관심이었다. 여학생 휴게실 관련 작업은 학생회에서 당연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별 고민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물품을 나르고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학생회는 여학생 휴게실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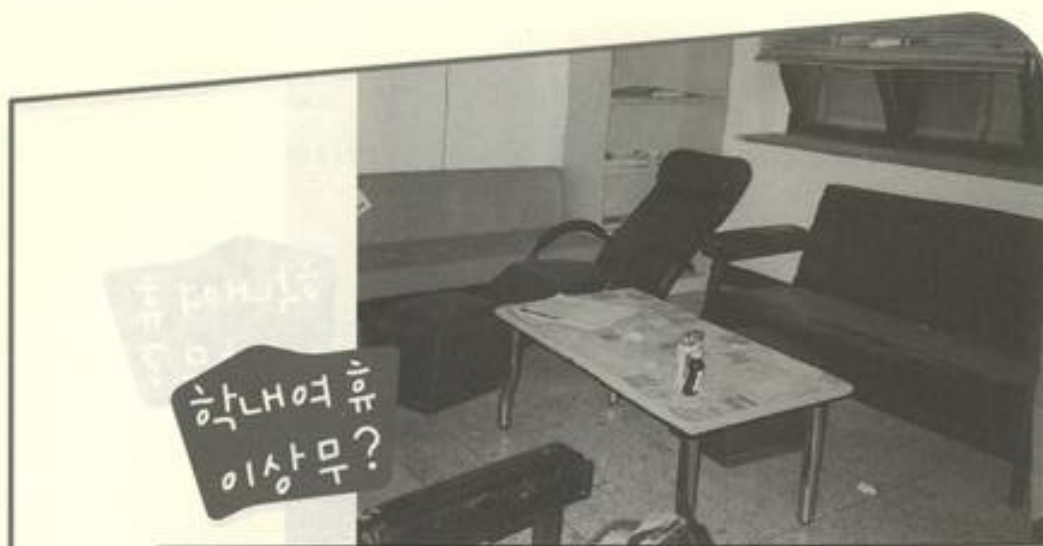
상대 여학생 휴게실

상대 여학생 휴게실은 상대 별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도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치공간과 많이 떨어져 있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찾기도 쉽지 않다. 공간은 좁지 않은 편이나, 몇 개의 의자와 소파, 테이블이 짜임새 없이 놓여져 있다. 게다가 벽면도 지저분한 편이라 여학우들이 쉬러 올 만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갖춰져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여휴만만과 상대학생회는 논의를 거쳐, 짜임새 있는 공간 구성과 여학생들이 쉴 수 있을 만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개, 보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상대학생회가 상대 사무실을 만나 여휴에 간이 침대 식의 수면 공간과 대화 공간을 분리하고, 벽면 페인트칠과 컴퓨터와 소파, 책장 등을 배치하는 안을 요구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으며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이 곳은 한여름에도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난방기 설치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공간은 앞으로도 의미 없는 비어있는 공간(空間)일 뿐이다.

상대 사무실은 우선 관리주체가 명확히 서야 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에 여학생 휴게실 자치 위원회(가칭)를 모집하게 되었고 현재 1명의 지원자가 있는 상황이다. 여휴만만은 상대학생회와 앞으로 더욱 협조하여 상대 여휴를 여학우들이 편히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여성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공대 여학생 휴게실

공대는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여학생 수가 문과대학 다음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때문인지, 공대에는 여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문화적 환경도 더하여 여학생의 입지는 그리 넓지 못하다. (여학생이 공대 앞에서 담배 피우기란 모험(?)의 수준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공대 여학생 휴게실은 너무나 방치되어 있다. 위치도 신공대 복사실 옆이라 외적되고, 공간도 너무나 협소하며,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쇼파 등의 물품도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블라인드는 망가져 있는 상태고, 여학생 휴게실이라고 알아볼만한 현판마저 없다. 또한 지지난해 행사 포스터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1학기에는 단대 측에서 문을 열어주고 닫는 관리도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공대 학생회와 불화(?)도 있었다. 공대 학생회는 2학기에 관심이 있는 여학생들에게 여휴에 대해 고민할 자치 모임을 꾸릴 계획이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공대 여학생 휴게실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학내여휴
이상무?

이과대 여학생 휴게실

현재 이과대의 여학생 휴게실(이하 여휴)은 기존의 이과대 독서실 옆에서 신설된 데점 앞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과대 사무실이 독서실 자리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여휴 공간은 사무실 서류창고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과대 학생회는 지난 학기 교학부장과 여휴 내부의 새로운 구성에 합의를 보았다. 그래서 현 여휴 앞에 새로 생긴 생협 데점과 함께 공사를 한다고 했으나, 중간에 교학부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합의가 날아가게 되었다. 여학생 휴게실 공사는 시설과로 넘어가게 되었고, 임시로 벽을 쳐 놓은 쉼터로 만들어 놓았다. 여휴 이동 후, 여휴 내부는 중앙에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해 놓고 안 쪽에는 쇼파만 배열해 놓고, 바깥(문쪽)에는 큰 탁자와 쇼파를 배치해 놓았다. 그리고 거울이 하나 있다. 이과대 학생회측은 학교 측에 쇼파의 교체를 약속 받았다.

예전의 여휴가 채광면이나 환기나 위치 면에서 더 좋았다는 의견이 있기도 하고, 지금 옮긴 위치가 공간이 좀 넓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이과대 여학생휴게실은 나름대로 이용 인원이 많다.

학내여휴
이상무?

중앙도서관 여학생 휴게실

방학동안 중앙도서관은 중도 6층의 흡연실로 쓰이던 휴게실을 줄이고 그 안에 500여개의 사물함을 배치하도록 결정하였다. 사실 남학생들의 흡연실이었던 휴게실을 줄이면서 흡연실의 공간을 물색하던 중 여학생휴게실이 거론되었고 여휴 내 흡연실로 쓰이던 공간과 여휴의 일부분을 흡연실로 쓰기로 하였다. 여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총여나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중도의 입장만을 내세워 개선작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 사실을 안 여휴만만과 총여학생회는 급박하게 중도 관리과와 면담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여휴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 중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고 했으며 흡연실은 남녀공학이니 만큼 '함께' 자유롭게 쓰도록 하자고 하였다. 여휴를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그 안에서는 휴게실을 줄이면서 사물함을 들여놓는 판에 그것은 여학생들만을 위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식으로 이해되었고 중도는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는 곳이지 쉬는 공간까지 중도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논의 결과 여휴의 흡연실과 여휴의 일부공간을 남녀공용 흡연실로 쓰기로 하였고 흡연실 안은 칸막이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금 앞은 두개의 칸막이가 설치되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소파와 한 개의 테이블이 마련되었다.

좁아진 여휴에 대해서 중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 안의 가구 등의 재배치를 요구하자 여력이 안된다고 이런 문제는 여학생처가 협조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하였다. 공간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의 거리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졌고 그 안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리고 안엔 달랑 소파들만 놓여져 있을 뿐이지만 다른 걸 들여놓는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는 중도의 여휴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아니나 내부 공간 구성을 다시 할 계획이라는 말이 들린다.

학내여휴
이상무?

학생회관 여학생 휴게실

학관 여휴는 그 관리 책임이 여학생처에 있다. 그러나 한번쯤 학관 3층 여휴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소파나 테이블이 더러우며 오래전부터 방치된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에 여휴만만과 총여학생회가 여학생처에 여휴의 개선을 요구하자 먼저 여학생들의 여휴에 대한 인식과 문제를 지적하며 여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결국 여학생처는 소파의 부분 교체를 약속했으며 공간의 재구성을 논의하기로 하고 여휴만만과 함께 여휴공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어가기로 하였다.

최종 상황을 정리하면 흡연실을 따로 마련하는 것 등의 문제에 있어 논의중이며, 이 또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아니나 여학생처는 효율적이고 편안한 공간구성을 위해 다른 곳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여학생 휴게실은 많은 사람이 아시다시피, 방치 그 자체이다. 대체 어디서 관리하는데, 그 모양인지 좀 따져볼까. 여학생만 텅은 각 단대 건물 소속 여휴는 단대에서, 학관 여휴는 여학생처,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에서 일차적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다. (아니 지금의 행정 체계가 그러하니, 우선 이렇게 나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은 여학생처로 떠 넘기려고 하고, 여학생처는 자신들이 힘이 없다고 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고, 혹은 총여학생회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게 어떻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대 사무실측은 여휴를 자치공간 정도로 사고하고 있었다. 쇼파 몇 개 정도 가져다 놓고,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쓰라는 태도이다. - 현재 여휴의 위상이 자치공간으로 확정된 곳은 문과대 여학생 휴게실뿐이다. 자치공간이라 함은 학생들의 합의 과정을 통한 결정으로 공간의 용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여학생 휴게실의 자치공간화는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 여휴의 이용자들 다른 동아리나 학회처럼 공식적이고, 형식적이거나 대표를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합의 과정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으로 여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

사실 자치공간화 되어 있는 문과대, 그렇지 않은 단대나 관리면에서는 똑같은 태도이다. 왜 그럴까. 단대 사무실 측의 gender-blind한 인식의 부족도 있겠지만, 단대 사무실은 학교 행정의 말단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쇼파를 하나 들어 놓으려고 해도 어디서 주워오거나, 학교 관재과(학교내 비품 제작 및 수리, 관리 수행)에 가서 어디서 굴러 들어온 쇼파를 가져온다 - 사실 이것도 주워오는 거와 마찬가지다. 어쩌면 운 좋게 의자나 탁자 등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사무실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사무실을 '통한다는 것'이 사무실에 결정의 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무실 측의 건의가 학교 중앙에 들어가 검토 후에 예산(기획실 예산 조정과)이나 비품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도여휴

나 학관여휴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휴를 공사하려면 - 예를 들어 흡연실이나 수면실을 위해 공간을 분리하는 공사를 할 수 있겠다 - 학교 측 공간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공간위원회에는 학교의 주체(한 발 물러서서 학교 서비스의 고객, 손님,의 위치에서라도)인 '학생'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자기들끼리만 나눠먹는 게지. 그 위원회에서 여휴의 공사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사무실 측에선 굳이 괜히 애써서 여학생 휴게실에 대한 예산 배정을 따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예산 신청을 해도 위에 올라가면 팔릴게 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일까. 그러니 그 공간은 '너희들의 자치 공간' 아니냐는 뉘앙스를 띄우고 뒷짐을 지고 있다. 현재 여휴가 어찌 지금 자치 공간일 수 있는가. 그곳이 학회나 동아리 과/반 구성원들 같은 고정된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곳도 아닌데, 공학 휴게실이나 회사 휴게실을 '그 사람들의 자치공간' 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는가. 휴게실은 유동하는 사람들이 쉬다 가는 곳이다.

물론 이용자들의 에티켓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재발 기본적으로 설만하게 만들어 놓고 (도색이나/ 기본적 비품의 구비/ 조명 보수/ 상황, 필요에 따라서 여휴 내 공간 분리) '너희들의 공간' 이니 잘 사용하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 맥락없이 '너희' 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너희들의 공간' 이기 전에 '휴게실' 이지 - 그것도 '여학생' 의 - 않은가. 그렇다면 여학생들이 왜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쉬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쉬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와 하고 그에 알맞는 여휴의 위치와 구성에 대해 신경을 써야한다고 본다.

아무 맥락없이
'너희' 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너희들의 공간' 이기 전에
'휴게실' 이지
- 그것도 '여학생' 의 - 않은가.
그렇다면 여학생들이
왜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쉬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쉬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와 그에 알맞는 여휴의 위치와
구성에 대해 신경을 써야한다고 본다.





아니 이런 말이 있나!!

비 흡연자 소수 남성을 위한 휴게실도 만들어 달라. - 상대 모 남학우

여학생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휴를 열심히 드니들었다.

- 모 선배 남성 후보

음, 교수님들이 소파 버릴 때가 되긴 됐는데.....

- 구명난 소파 언제 바꾸냐는 질문에 모 학생회에서

여휴 비품들 우리도 주워다 쓰는 거예요.

- 지치 공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 학생회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남학생이랑 사이좋게 같이 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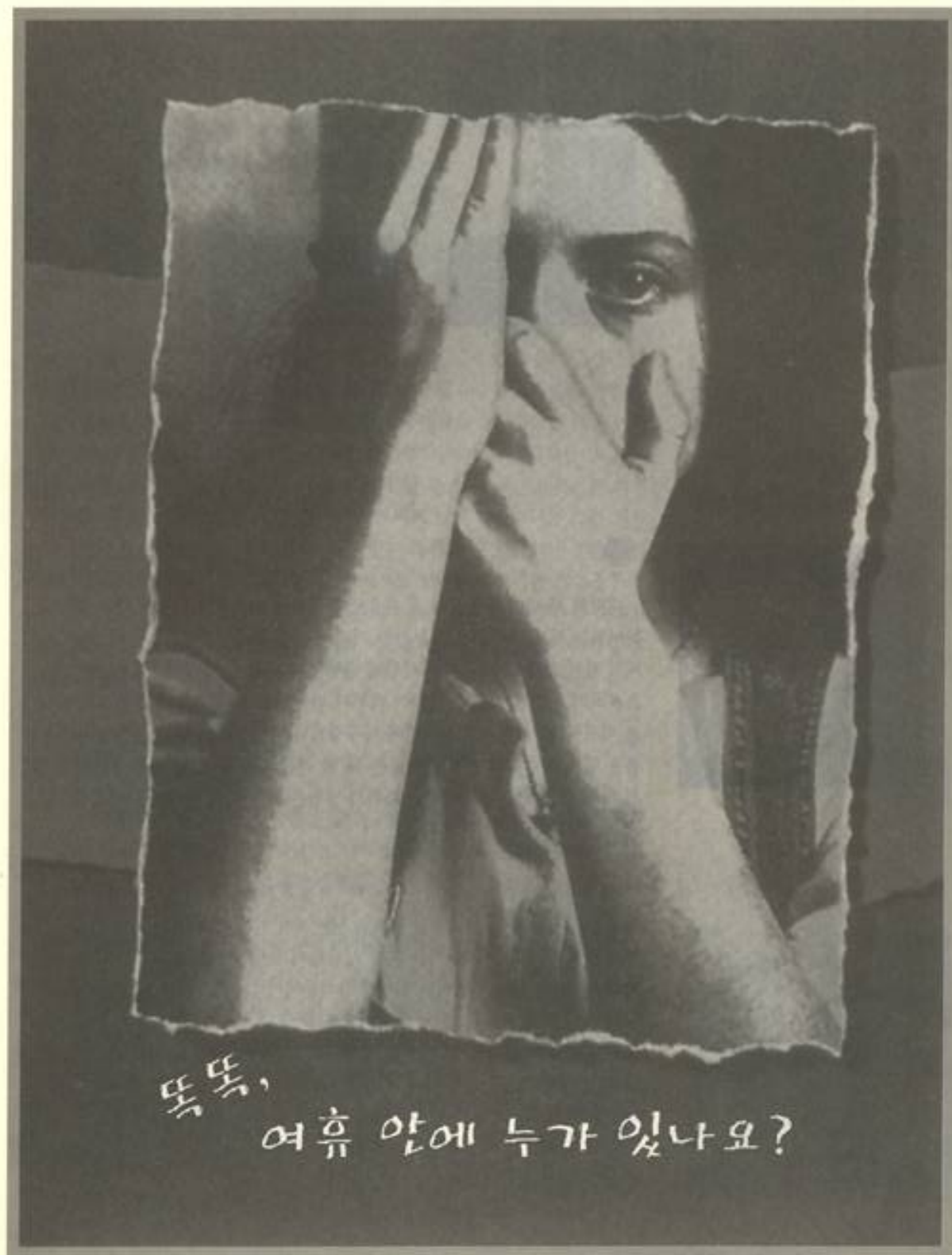
- 여학생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질문에 학교측 담당자 왓

대체, 중앙도서관에 휴게실이 왜 필요한 건지, 와서 잠이나 자고 말아야,
도서관에 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 중도 6층 여휴 공사를 건의하자 모 관계자 왓

아니, 자기네들이 깨끗이 쓰지도 않고서, 왜 이리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를 다해야죠!

- 잠깐 문 열어달라, 기본적인 비품 달라는 요구에 모 학교 관계자 왓



뚝뚝,
여휴 앞에 누가 있나요?

수
기
1

여 휴 ,

그

작 은

쉽 터

사회계열 이
윤 계 연



● 대학의 문 밖에서 동경에 찬 눈으로 캠퍼스를 바라보던 시절에 나는 대학이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무한한 기대와 상상을 즐기곤 했었다. 이제는 매일 감동 없이 받아 들이는 생활의 단면들이 되어버렸지만 그 때는 감히 소유하지 못했던 그런 일상들이 너무나 간절했었다.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이고 드넓게 펼쳐진 잔디밭에 아무렇게나 털썩 드러누워 곳곳한 풀내음을 만끽하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여유, 유치하기 하지만 그래도 내가 꿈꾸던 대학의 낭만은 이 한가지 단상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하다.

그러나 막상 대학의 현실은 달랐다. 하늘과 잔디밭은 있었지만 거기에 드러눕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낭만적인 일은 아니었다. 소위 얼굴 두꺼운 아이가 되어 지나가는 온갖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들을 거뜬히 이겨내면서까지 낭만을 위하여 희생할 용기는 없었다. 이것은 어쩌면 나 자신의 용기 부족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끔 중도 옆 잔디 밭에 누워 책을 읽다가 때로는 그대로 잠깐 잠을 청하기도 하는 남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나처럼 스스로의 모자란 용기를 탓하며 알 듯 모를 듯한 아쉬움을 느끼는 여학생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여학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에 보태진다면 웬지 조금 더 서글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굳이 위의 예와 같은 낭만적 체험의 비예를 들지 않아도 학교 생활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은 많다. 표면적으로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장벽들은 순간마다 눈 앞을 가로막기 일쑤여서 부딪쳐서 다치지 않으려면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긴장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 늦게까지 학교에 머물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기로 의외로 쉽지 않았다. 정말 단 몇 분이라도 보이지 않게 따라다니는 그런 긴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말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강의실, 반방, 동아리방에서도 얼마든지 아늑한 휴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그런 공간들 속에서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없으며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 여학생 휴게실이 아닐까 한다.



여학생 휴게실에 관한 말들은 많다. 그런 식으로 자꾸 따로 대접받으려고 떨어져 나가고 싶어하니까 오히려 동등해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고 왜 남학생 휴게실은 없냐며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남학생 휴게실도 필요하다면 만드는 것에 찬성한다. 당연히 남학생들 중에서도 학교 안에서 휴식을 누릴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휴게실이란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소망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공론화 될만큼 절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가 묻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문제이고 누가 뭐래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치며 살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이기에, 누가 챙겨주지 않기에 더욱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챙겨야 할 문제인 것이다.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많은 편견과 싸워야 하는 한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받아야 할 권리는 어찌면 당연한 게 아닐까.



사회라는
망망대해...



97
모 모 씨

시계를 본다. 공부한 지 한 시간은 지난 것 같다. 구깃한 담배갑을 꺼내 들고 여휴로 간다. 흡연실은 휴게실 한 모퉁이에 여섯 평 채 못되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들어서면 담배연기와 몇몇 여인네들의 시선이 나를 맞는다. 복적대는 낮 시간에도 내 엉덩짝을 엿을 자리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친절할 엉덩이들이 서로를 밀착시켜 주므로.

나는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두고서 휴학을 했다.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라 믿는 것도 없이 학업에 충실하지도 않던 인간에게도 취업과 진학이라는 현실은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졸업 후에 뭘 하려고 해도 나에게 그 흔한 토익점수 하나 없었기에 그것만이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휴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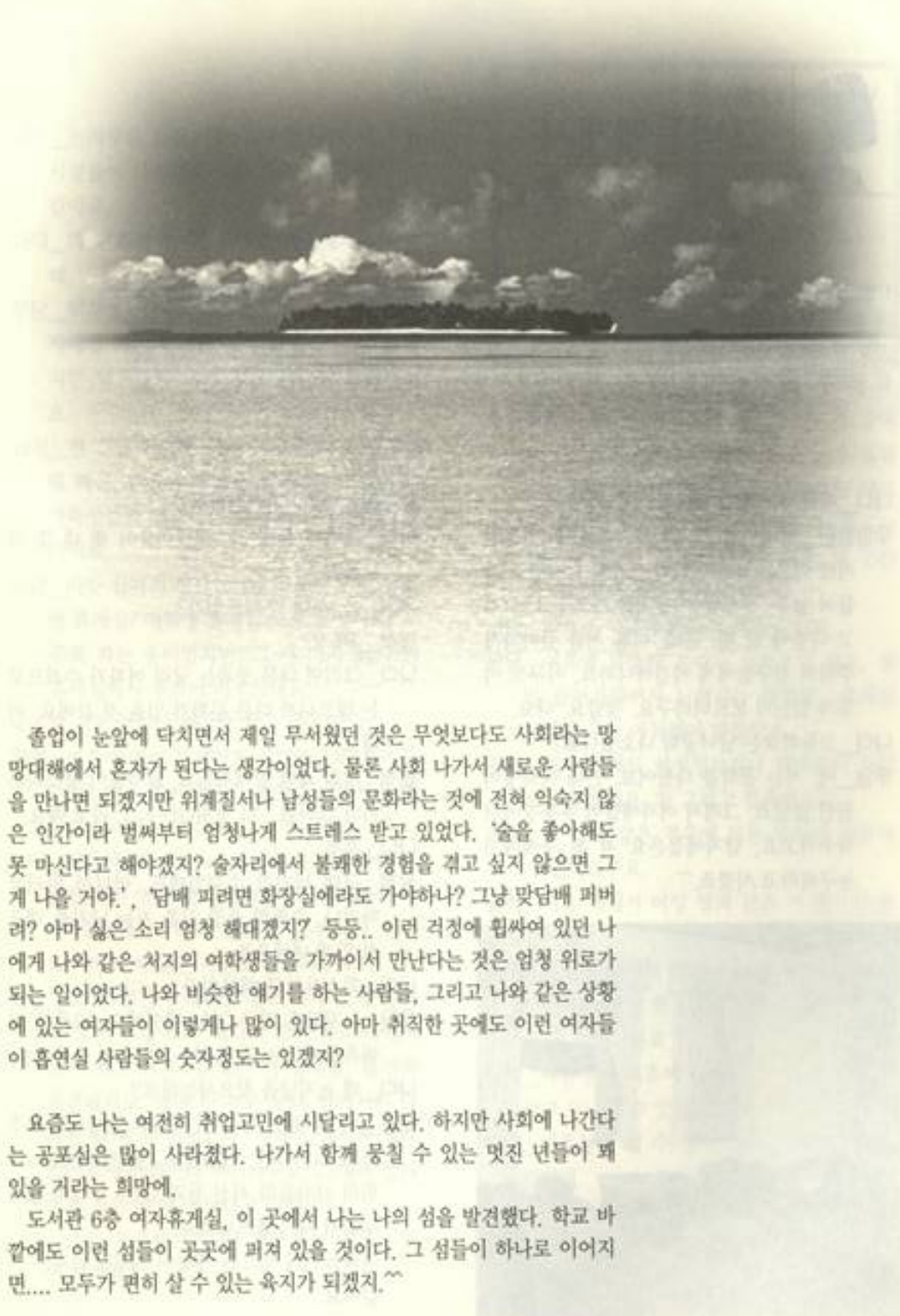
나의 아지트는 도서관 6층이다. 이유는 하나. 여휴가 거기 있으니까. 혼자 담배를 피다보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자연히 귀 기울이게 된다. 얘기소재는 다양하다. 남자친구, 가족 등 서로의 일상 얘기 - 흔히 친구들과 만나면 하는 종류의 얘기들. 그러다 어느덧 나는 흡연실에 자주 보이는 얼굴들에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다. 익은 맛도 있었지만 나와 같은 취업준비생이라는 걸 알고 나니 묘하게 맘이 편해졌다.



졸업이 눈앞에 닥치면서 제일 무서웠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라는 망망대해에서 혼자가 된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사회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되겠지만 위계질서나 남성들의 문화라는 것에 전혀 익숙지 않은 인간이라 벌써부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 '술을 좋아해도 못 마신다고 해야겠지? 술자리에서 볼레한 경험을 겪고 싶지 않으면 그게 나을 거야.', '담배 피려면 화장실에라도 가야하나? 그냥 맛담배 피버려? 아마 싫은 소리 엄청 해대겠지? 등등.. 이런 걱정에 휩싸여 있던 나에게 나와 같은 처지의 여학생들을 가까이서 만난다는 것은 엄청 위로가 되는 일이었다. 나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 아마 취직할 곳에도 이런 여자들 이 흡연실 사람들의 숫자정도는 있겠지?

요즘도 나는 여전히 취업고민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간다는 공포심은 많이 사라졌다. 나가서 함께 뭉칠 수 있는 멋진 년들이 꽤 있을 거라는 희망에.

도서관 6층 여자휴게실, 이 곳에서 나는 나의 섬을 발견했다. 학교 바깥에도 이런 섬들이 곳곳에 퍼져 있을 것이다. 그 섬들이 하나로 이어지면.... 모두가 편히 살 수 있는 육지가 되겠지.^^





그녀들에게서 듣다

11월 15일 여휴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학우 2명과 게스트 나디 그리고 기록자 콰이가 총여실로 술금술금 모여들었다. 여휴를 잘 사용하는 사람,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등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모였기에 여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두루 들을 수 있었다. 콰이의 인터뷰 기술 부족으로 얼결에 들른 나디라는 친구가 전격 투입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나디_여학생 휴게실 얼마나 자주 가세요?

우당탕탕_여태까지 두 번 가봤어요(구 인문관 지하 여휴). 저번에 한번 여휴에 탁자랑 의자 들어 놓고, 청소했을 때 처음 가보구요. 그리고 나중에 한 번, 근데, 여휴 처음 갔다와서 주위의 친구들에게 얘길하니까요. 아무도 여휴가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정말요, 다요.

나디_고등학교는 남녀공학 나오셨나요?

우당_예, 저는 공학을 나왔어요. 근데 여학생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여자애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고요. 남자애들은요 저 쪽 구석에서 농구하라고 시켰죠.^^



모두들_오후~ 신기신기신기

나디_그런데 문대에는 여남비율이 몇 대 몇 정도죠?

우당_음.. 3대 1? 정도인가?

팔척_3대 2?

나디_그러면 다른 곳과는 달리 여자가 수적으로는 많으니까 다른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팔척_저희 과반 방에서는요, 남자들이 뽀소리하거나 그러면, '너 똥친다(---)' 라고 해요.

나디_후훗

팔척_근데 남자가 소수인데도, 어디서 인터뷰 하거나, 수련회 조장 같은 거는 남자를 대표성 있게 내세우죠.

나디_최소가치(?) 때문인가.(---)

우당_논지당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다른 곳의 여휴들이 논지당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디_왜 논지당을 찾으시는데요?

우당_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과/반 방에서도 자주 자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논지당에서는 (주위의 남자들의 시선 등과 같은) 부담이 없이 누워서 자기 좋으니까요. 여자들끼리 있으면 행동이 자유로워지는 거 같아요.

나디_논지당은 잠잘 사람, 공부할 사람, 얘기 할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나디_왜 여휴만 있냐, 역차별이란 얘기도 하는데.

우당_역차별이란 얘기도, 음.. 저두 어찌다가 남자애랑 그거에 관해 얘기 한적 있어요. 그렇지만 남자들이 정말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콰이_전 그냥 가끔씩 편히 자고 싶다고 생각할 때 빼곤, 남휴에 대해서 생각해본적 없어요. 여학생들의 필요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당_아하 갑자기 생각났는데 고등학교 때 남학생 휴게실/여학생 휴게실 따로 있었어요. 주로 자는 용이었지만, 그 때 여자애들과의 휴게실에서 추억이 떠오르네요.

모두들_(또 역시나 특이한 학교 같군요^^)

팔척_여휴 흡연이 문제인거 같더라고요. 환기도 안되는게 많아 공기도 탁한데 담배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나디_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많이 상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대 여휴의 백지 자보에는 "쉬러 왔는데 공부하지 말아요." 라고 써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

콰이_그게, 공간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 같아요. 계다가 같은 학교 내에서도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거 같아요. 휴연과 관련해서도, 어떤 한 분은 문대 앞에서는 담배를 잘 켤 수 있었는데, 상대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못하겠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여휴 가서 켤 때가 많다고 하네요.

나디_그럼, 여휴를 자주 안 가게 되는 이유는 뭔 거 같아요?



우당탕탕_그렇게 절실하진 않아서 인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과방에 자주 가고 싶던 종던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편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여휴는 가면 썰렁하고,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하죠. 내 공간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나디_앞으로 여휴에 바라는 게 있다면요.

우당_여휴에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 해요. 정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썰렁함.. 휴게실이라면 우선 아늑해야 하잖아요.

팔척_여휴 안에도 여성정보지나 책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 그리고 컴퓨터도요.

콰이_참 상대 같은 경우에 모든 반방에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팔척_여휴 내에서 여성 영화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콰이_저번에 여성제 기간에 문대 여성주의모임 모반에서 한번 했었는데.. ---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나봐요 ^^

팔척_다음부터 여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드나들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당_마음놓고 쉴 수 있는 익숙한 공간이 되야 할텐데.....

콰이_다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즐거웠어요~~ 끝



왜 '여' 학생 휴게실이 필요하냐구!

진짜루 궁금해?

내가 알려주마~ 짜잔~

☐ “자치공간도 부족한 데 무슨 여휴야! 반방이나 동아리 방으로 바꿔주!”

사실 우리 학교는 자치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자치공간은 필요로 하는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투쟁해나갈 원동력이 있다. 여휴는? 실질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체가 없다. 투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필요성은 있으나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공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여휴를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동일선상에서 판단하여 그 절실함을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로써 학교가 당연히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여휴 관리에 근로 장학생을 두는 학교도 있다)

☐ “쉬고 싶은 과방이나 동아리 방에서 자면 되잖아!”

여휴가 진정 필요한 공간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가지 부류가 있다. 정말로 모르는(순진한) 사람들과, 자신의 기준에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 불편해도 대중 참고 살으라고 은근한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의 경우를 위해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대학'이라는 소위 진보적인 공간(누가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다만...)에서도 '여성'은 소수자이다. (미녀의 개념을 설마 양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지?) 학내의 무성으로 보이는 공간들이 사실은 무척이나 남성중심적이며, 동시에 여성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어떠한 남자 흡연자들도 평생 담배를 피면서 위험감이나 불안감을 느껴보지 못할 것이다. 시선의 압력 외에도 실질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물리적 폭력에 여학생들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여휴의 존재란 어찌보면 마지막 보루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다.

☐ “왜 남자 휴게실은 없는 데 여자휴게실만 있는 거야!”

이 명제에는 두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i) 남자들도 정말 쉴 곳이 필요하다. - 이 경우 남자들은 열심히 힘을 모아 자신들의 의견을 실행하기 위해 애쓰면 된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인데 정말 필요하다면 휴게실 하나쯤 못 만들겠냐... (예비역의 쉼터는 곳곳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 같은 경우 공간의 위치를 볼지언데 여휴의 경우 별관 구석에 있어 찾기도 힘들지만 상대 예비역의 쉼터는 학생회실 바로 옆, 중앙에 존재하고 있다.) 아님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있는 휴게실을 없애자고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은 것이다.

ii) 쉴 곳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웬지 역차별 같아서 싫다 - 이 경우의 남자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여성들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역차별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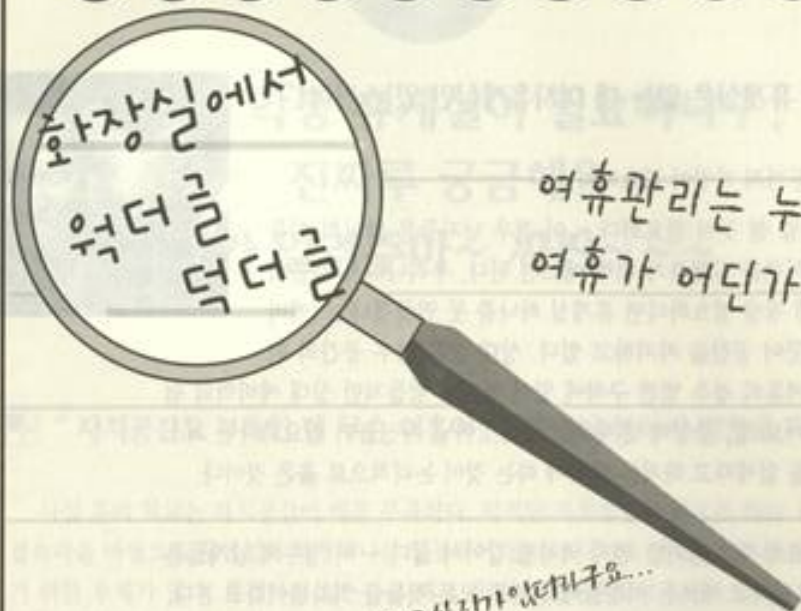


☐ “여휴에서 숨어서 담배 피지 말고 당당히 나가서 피! 몇몇하다면 자유는 쟁취해야 하는거야!”

이 주장은 여성주의를 표방(?)한 남성들이나, 힘없는 여학생들의 현실을 잘 모르는 일부 교수님들이 많이 말하는 것이다. 사실 나두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 같아서는 학내의 모든 공간을 투쟁하여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누구의 시선도 상관치 않고 풀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다 잠들어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치마입고도 편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이 좁고 쾌쾌한 지하 깊숙이에 있는 10명도 안 되는 여휴 뿐이라는 것이 나 역시 안타깝다.

그치만!!! 내가 보는 현실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여휴 밖에서의 적극적인 공략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지친 몸을 쉴 공간은 아직 필요하며, 이 공간이 없다면 '대의(?)'를 이를 힘마져 소진해버릴 것이다. 요상스런 눈빛을 감수하고서도 밖에서 담배를 뿜뿜 피는 나지만 가끔은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워 여휴로 들어가는 나를 마냥 탓할 수만은 없다...



여휴관리는 누가 하나요?
여휴가 어딘가요?

답게 넘새 때문에 여휴 도무지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학교는 심운데...
주도처럼 여휴에 휴연실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강여나 휴연실을 따로 만들죠 이에

학교가 공부만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생활의 일부인 만큼 당연히 실곳이 필요하죠!

연세대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날
비로소 여휴는 없어져도 될 듯 하네요
←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에겐 편히 쉬 곳이.

평등하게 남유를 만들어야 한다면,
또한 평등하게 여학생들을 위한 농구대,
여학생들을 위한 운동장(공간)을 만들라!

이 넓은 학교에서
여학우가 쉬 공간은 여휴뿐!

여휴는 과반을 남자들에게 점령(?) 당했기 때문에 생겼을지도...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과반같은데 뵈어 갈 순 없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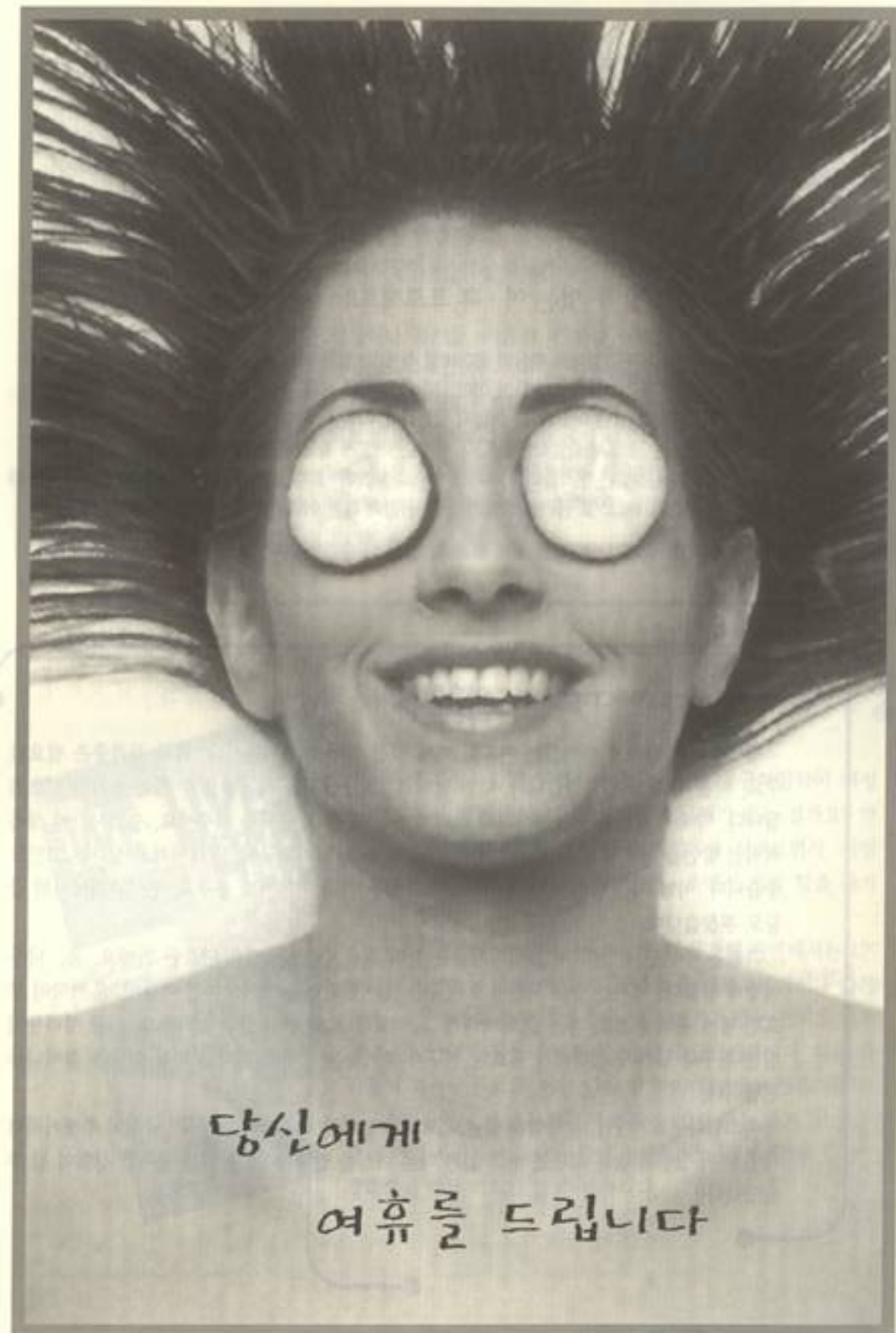
여휴.. 논지당?
피곤하거나 생리통 좀 심한날 누워서 쉬기 좋다.

남휴가 없다는 이유로 '남녀평등'을 주장하며
기존의 좋은 것을 없애서
행복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여학생 휴게실은 실질적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소통공간이 될 수도 있구요.





지하에 있다고 믿은 건 아니었거요?!



당신에게

여휴를 드립니다

취가 고양이를 무는 방법

이 글은 성폭력 상담소에서 공모한(여학생 휴게실 기능 전환 공모전) 당선작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여학생 휴게실에 관련한 실질적인 제안 모음입니다.

작은, 그러나 엄청난 변화 만들기

- 당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휴 프로젝트!!

'행복한 여휴'를 만들기 위한, 취가 고양이를 확실히 물어버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 '러브 하우스' 등 다양한 리모델링과 건축 아이디어들이 이미 우리의 머리와 몸을 근질거리게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한번 우리가 원하는 여휴를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휴를 매점이나, 공중 화장실처럼 스쳐 지나가는 공간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여휴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당신에게 수많은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또한 간헐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밖으로 고집어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여휴의 변화는 이곳을 자신의 공간으로써 사고하고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 가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을 살펴 볼까요? 훨씬 더 훌륭한 아이디어와 해답은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 femi-prescription : 여휴안의 작은 약국

핑~하니 황량하게 비어있는 여휴의 벽에 멋진 약국을 세워봅시다. 약사 자격증은 필요없고요, 약을 살 돈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고민+생각을 적어놓을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약국에 당신을 힘들게하거나 화나게 하는 일과 그 증세를 써주세요. 수업시간에 성폭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교수로 인한 짜증도 좋고, 남자친구랑 잘 헤어지고 싶다는 고민도 좋습니다. 아님 최근 당신의 맘을 아프게하고 있는 가족 이야기도 좋구요. 연애편계에서의 갈등도 괜찮습니다.

그리곤 주변 사람들의 처방/이야기들을 같이 적을 수 있는 칸을 만드는 거예요. 음.. 나두 이렇게 힘들다. 내지는 맘을 시원하게 해줄수 있는 한마디를 적어보는건 어떨까요? 백약이 무효인 병에 우리 손으로 적은 말 한마디가 '동의보감'으로 변신 할수 있대구요. 가끔 생리통이 심한 친구나 급하게 생리대가 필요한 친구가 붙여놓은 쪽지를 본다면 진짜 알약을 붙여놔두 된답니다.

썩스럽대구요? 아님 내 경험을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적기 힘들대구요? 당신이 꾸벅거리며 내민 손이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여성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행복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말마다 열리는 작은 벼룩시장~

용돈도 궁하고, 큰맘먹고 장만하기엔 돈이 아까운 물건 있으세요? 여휴 문을 열었을 때 멋진 벼룩시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안쓰는 물건 교환도 하고 작은 소품 만들어 팔아보기도 하고 나에겐 소용없어진 교재를 내놓기두 하구요. 여휴에 거의 사람이 없는 주말마다 시끌시끌 장터를 열면 좋지 않을까요?

가끔은 그냥 물건을 교환하는 벼룩시장이 아니라, 주제가 있는 벼룩시장으로 변신도 해보면 더욱 멋지겠지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선물이나 물건들, 커피터, 반지를 버리긴 아깝고 그냥 두자니 화가난대구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처분 못하고 있는 물건들을 모아 파는 "가벼리" 장터 어때요? 물건을 팔기도 하고, 교환하기두 하면서 함께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면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엄마에게 선물하면 좋은 책이나 영화표 같은거를 공동구매하는 일도 멋진 행사가 될 거예요. 또 새움터 언니들이 만든 예쁜 반지나 허브를 팔거나 또는 최근의 이슈를 담은 뽀는 뽀지를 판매하는 등, 학내 여성주의 단위가 여는 벼룩시장을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 여·휴량 수다떨기

최근에 응급피임약 이야기 보셨죠? 정말 응급피임약이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정말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약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기 잇속 차리기를 지켜보면서, 피임하고 싶어하지 않는 남자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정말 답을 찾기 힘든 문제입니다.

아님 최근 합헌 판결이 나버린 간통죄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런 이야기는 몇몇 여성주의자나 토론 프로그램에서나 하는 거라구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내 이야기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귀찮았던 문제들에 대해 한 번 다시 생각해봅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묻고요. 이는 단지 말 한마디 보태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입장에서 다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 나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주의 "여성 good news, bad news"

항상 조그만 구석에서나 볼 수 있는 그나마 훌쩍 건너 뛰어버리기 쉬운 여성관련 기사들.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이 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일보다 적게 취급되어야 하지요? 여휴에서 만드는 신문은 여성관련 기사가 1면입니다. 이 주에 일어난 여성 이슈들을 모아 good news와 bad news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 하자, 하자 대청소!!

여휴의 청소는 조교나 환경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일이라구요?

여휴를 이용하는 우리 손으로 1년에 한 번씩 여휴 대청소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지 여휴의 구석구석 쌓여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일뿐만 아니라 벽도 칠해보고 배치도 다시하고 멋진 그림도 그리고, 청소한 사람들 이름이나 사진같은 걸 남기면 더욱 좋을 거예요.

뭐 저 멀리 해인사에서는 1년에 한번씩 팔만대장경 경관을 햇빛보게 하는 일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차비 들어가며 참석한다지만, 팔만대장경 대신 여휴의 의자를 들고 나가보죠 뭐. 바깥으로 끌어낸 김에 좀 더 멀리까지 여휴의 물건들에게 바람을 쐬게하면 어떨까요? 운동장 어때요? 여휴는 항상 갑갑하고 좁은 곳에만 갇혀있으란 법 있나요?

아님 여휴를 왜 그리 방치시켰냐고 총장이 있는 본관앞에다가 일일 여휴를 만들어 버리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의자들이 무겁다고 투덜거리는 분이 많다면 대신, 대 청소날 학교 관계자들에게 한마디씩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겠어요. 여휴 수리를 요구하거나, 학내에서 여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공간이나 시설들의 보수를 요구하고, 생리대 자판기를 늘려달라고도 하구요.

또, 대청소를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여성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에서도 하지 않던 청소 해가면서, 온몸에 먼지 묻혀가면서 왜 그것을 해야냐고, 사람들이 모이겠냐고 말할 수 있지만 여휴의 청소가 단지 여휴만의 먼지를 쓸어내는 일 뿐만 아니라 나의 대학생살을 힘들고 짜증나게 하는 학교안의 모든 차별적인 것들을 쓸어내버리는 일로 생각하면 ... 안 될까요?

옆 동네 여휴 이야기

다른 학교에도 여학생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여휴에 어떤 시설과 물품들이 구비되어있고, 어떻게 관리, 운영되는지 알아보고 연세의 여휴와 장단점을 비교해보아요. 모든 자료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운영하는 사이트 <http://www.femispace.or.kr>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시립대학교 여학생 휴게실 (학관 층여실 옆)



여휴 안의 샤워실

총여학생회 방 옆에 위치한 시립대학교 여학생 휴게실은 각 학교 여학생 휴게실 중 운영이 잘되고 있는 모범 사례로 많이 꼽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총여실과 함께 여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샤워실, 분리된 수면실과 공부방등) 총여측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휴게실의 관리와 활용을 고민하는 자치모임인 섬사모가 꾸려져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립대 총여학생회에서는 휴게실의 활용과 관련하여 여학우들의 정보공유공간으로써의 섬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며 섬터내 영화제도 기획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섬사모의 모임이 줄어들고, 여학생 휴게실에 배정되었던 근로 장학생이 없어지면서 여학생 휴게실의 관리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마실> (홍보관)

<마실>은 학교로부터 공간을 따내 자치 운영 중인 휴게실입니다. 99년 문을 연 마실은 도우미들과 여학우들이 자치적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공간은 그리 크지 않지만 곳곳에서 여학우들이 따뜻하게 설만한 아기자기한 정성들이 엿보입니다. 자치모임 <마실>은 개장파티와 베품시장과 공개세미나, 영상상영과 토론회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안정된 예산이나 물품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여학생휴게실

경희대학교 내의 여학생 휴게실은 총 5개가 있으며, 이중 2곳은 총여가 관리하고 문리대 여학생회, 한의대 여성자치모임이 관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곳인 <미랑>은 수면공간과 비디오, 오디오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인권복지위원회 예산으로 학생중 관리자를 뽑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씩 총여에서는 복지관에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으며, 여학생 휴게실 전반에 걸쳐 휴게실 비품과 공간을 더욱 좋게 꾸미는 문제로 학교측과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미랑> 커튼 뒤에는
조용한 수면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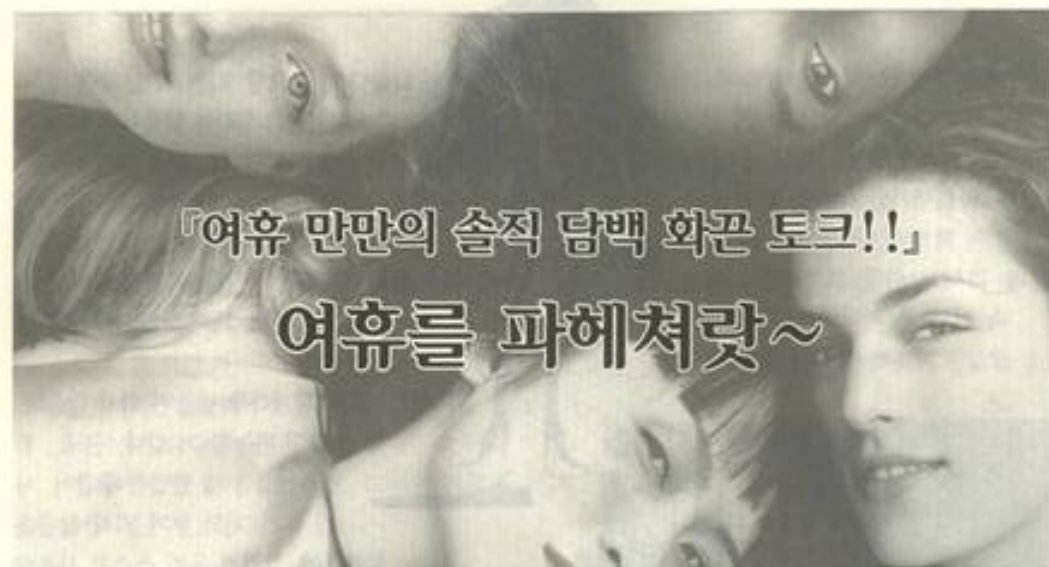


이불, 원기 모두 GOOD!

한양대학교 여학생 휴게실

유리문 너머에는 카페 분위기의 공간이 있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내부 공간이 짜임새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유리문 왼쪽에 자리잡고 있는 PC실과 휴게실 한켠에 따로 마련된 회의실, 그 반대편의 수면실은 여학생들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관에만 여휴가 있기 때문에 캠퍼스 곳곳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음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대체 여휴
는 어떤 공간이
여휴를 파헤쳐라
여휴를 파헤쳐라



「여휴 만만의 솔직 담백 화끈 토크!!」

여휴를 파헤쳐라~

시비가 많은 시발월(11), 그리고 욕할 일 많은 심파월(18).
늘 그렇듯 할 일 많고 시간 없는 여휴 만만 사람들은
자료실에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대담코너를 넣기로 한다.
이를 위해 신촌의 모 음식점에 모여 녹음기를 재장비한다.
앗! 그러나 이게 웬일! 장수소녀 흠씨의 살수로 콕의 녹음 부분을 지우고 만다.
콕이 절규하며 대담 시작-

콕(98' 서용원) _ 몰라 나 기억 안나~ 안돼! 나
진짜 안돼!!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해!!

흠씨(00' 석혜림) _ 콕이, 내가 흥삼 한 주먹 갖
고 올게 용서해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진
정하고.. 진짜 미안. 흠씨, 그럼 우리 이야기
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그동안 은밀히 활
동했던 비밀조직, 여휴 만만을 각자 하게 된
계기부터 말해보자.

예감(98' 김현주) _ 음, 난 총여학생회에서 일상
정치국 맡고 있잖아. 원래 총여 공약에 여휴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구상하게 됐고
혼자는 너무 벅차서 프로젝트 꾸리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어. 여성운동을 하면서 충분히
공감했던 문제지만 시작할 때는 당위성이 강
했지.

여랑(00' 김선혜) _ 나야? 고도리 방향이로군. 나

도 그때쯤 중도 여휴갔을 때 너무 심란한 마
음이 들어서 도대체 여휴를 어디서 관리하나
궁금해서 예감한테 이야기했는데 예감이 그
럼 전체적으로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어. 그
리고 그 즈음에 흠씨랑도 여휴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예감한테 흠씨 전화번호 줬
지. 예감이 알아서 전화하라고, 쿡쿡

흠씨 _ 참! 요즘 예감 하네 언론에 자주 나오더라.
여휴만만 때문이겠지?

여랑 _ 전에 사회대 여휴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
람들이 옆에서 "소파 들여와서 좋다.." 이러
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럴 때 뿌듯했지. 언론
의 관심을 받으면서 나름대로는 홍보도 했고.

흠씨 _ 아무래도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게 자부심
이 생겨. 그 전에는 잘 없던 움직임이잖아.

여랑 _ 힘들었던 일도 많았던 거 같아. 나 복숭아

벽 밑에 3바늘 꿰맸잖아. 소파 옮기려고 리어가 가지고 갈 때.. 소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리어가만 나르다 발 찢겨서 피 철철 나고.

출씨_그때는 한창 회의해도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가져오고.. 계속해야 하나 싶고.

예감_되게 답답해. 행정체제가. 이리저리 막 미뤄서 왔다 갔다 해야하고 그런데 나는 여휴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었어. 어떻게 여휴 만만을 가져가야 하나. 사실 아직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선 고민이 돼. 포기할 순 없는 공간인데 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출씨_비록 정답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내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들의 공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해. 그런데 다들 생각하고 있는 여휴의 최종 모습은 어떤거야? 새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여랑_여휴 영화제. 한달에 한번? 물론 장기적 관리자가 필요하지. 난 그걸 여휴 만만에서 했음 좋겠어. 아마추어리즘이 살아있는 작품들을 전시하면 좋겠다. 벽에다 그림 걸고 페인트칠하고. 사람들이 밥 먹고 그러면 휴게실이 아니라 왠지 잘못 들어온 거 같은 기분도 들어.

출씨_학관 여휴 소파 너무 불편해. 안 바꿔? 콰이_그때 물어봤는데 여학생처에서 예산이 안 된다고 있는 걸로 하자고 했잖아.

예감_근데 지금 있는 게 다 엉망이잖아. 소파도



다 다른 모양, 다른 크기, 다른 색. 여랑_그래도 좀 맞춘다고 맞춘 거 아니었어?

예감_무슨 엉망이야. 색깔들이 다 제멋대로.....

출씨_분홍색이 사람을 꽤 안정되고 줄리게 만든대. 테이블 보나 책꽂이에 인용하자.

예감_소파 덮개라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건 가능할 거 같다. 근데.. 합의나 그런 게 있었음 좋겠어. 사실 누가 되고 누가 되지 않음을 정하겠어. 그런걸 우리 스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서 알아가야지. 공간이 좀 드러날 수 있을 좋겠어.

출씨_나중에 그런 취지를 공감하면 여휴 단골들이 모여서 여휴 문화제를 했음 좋겠어.

여랑_날적이 XX.. 누가 훔쳐갔어. 한 장 썼는데 그 다음날 누가 가져갔더라.

다같이_가져가지 말아요!!

여랑_얼마 전에 공대 여휴 갔는데 숨 막혀. 블라인드가 막 찢어져서 사방에 있고 난장판 박스 굴러다니고 이쪽에 뭐 쓰러져 있고 소파 빙 둘러져 있고 그 사이에 누워 자는 의자가 있다니까. 무슨.. 백설공주도 아니고. 청소 절대 안되어 있고.

콰이_단대 사무실 같은 곳은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하는 건 좋다. 돈은 급해.. 돈은 모르겠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지.

예감_중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파 있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 쓰는 사람도 많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여학생처 같은데서 실태조사할 해야돼.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말야. 용

도에 맞게 인테리어 하는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짜봐야지. 전체 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출씨_근데 진짜 그런 공공기관에 의지하지 않고도 여휴 만만 자체의 노하우와 자료층이 있으면 정말 좋을 거 같아. 인테리어 하나를 가지고도 여휴 인테리어론 같은 것을 정리해놓으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예감_아니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영화제를 릴레이식으로 돌아가면서 틀면 어때? 각 단대 여휴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러면 여휴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때 출씨의 새로 산 핸드폰이 16화음으로 울리고 모두들 부러움에 동성동성~

출씨_사실 여휴라는 게 여학생들이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갈 때까지의 긴장된 생활 속 편히 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러고 보면 우리도 우리 나름의 각자의 휴식공간 같은 게 있을 거 같아. 몸과 마음이 탁 풀어져 있을 수 있는 곳.

여랑_휴게실에 놓고 싶고 피곤할 때 필요한 게 여휴인 거 같고. 휴게실은 늘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도 힘들고. 그런데 다른 데는 정말 쉴 때가 없어.

일동_맞아! 진짜 없어.

출씨_문화적 특성이 있는 실험 공간이 부족한 거 같아. 영화를 주기적으로 틀어주는 곳이라든지.. 고를 생 위에는 카페테리아 만든다는 게 언제인데 아직도.. 여휴도 색깔을 가져

야 한대구. 내 생각엔 각 단대 특성화가지고 만든 신문들은 특히 접하기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여휴에 배치해 놓으면 다른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 알 수 있을 거 같아. 그리고 정문 앞에 열쇠 채워진 신문함이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 다른 신문들은 배치하기 어려워지고.

여랑_그거 좀 웃긴 거 같애. 자기네 신문만 넣겠



다는 거잖아.. 대학신문 같지 않게.

출씨_그런 건 조금씩 우리 스스로가 바꿔 나가야 할 일이겠지.

콰이_힘들다. 힘들어. 출씨 가져오기로 한 홍삼 잊지 말아요!!

출씨_알았어요. 콰이. 우훗~

여랑_자료집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예감_그리고 다들 수고했어.

출씨_자, 이제 대강의 이야기는 다 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여휴를 위해 힘냅시다!!

일동_와아~~ 모두들 안녕!

3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좁은 지면에 모든 걸 담기는 너무나 어려웠다.

다들 여휴에 대해서는 할일이 많은 사람들이라 더욱 그러했던 거 같다.

대담을 읽는 독자들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열면 수다 분위기에 젖어 들 수 있길 바라며 정리를 마친다.....



여랑_ 우리의 상상력으로 지하에 있던 여휴의 창문을 조금 열었듯이,
여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내가 사는 모든 공간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기를...

콰이_ 벅벅대다 박박대고 짜증내다 우기다가 울다가 웃었다.
냉소적이고 자조적인 웃음이 아니길.. 2%의 부족은 내년에 채우자.

흙씨_ 여휴가 내 인생에 들어온 날, 난 100초는 늘어버릴 운명이었다.
자료집이여 안녕!!

예감_..... 잘 했으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다가는 그럴듯하게 써놓고 말이줘~
이 면을 빌어 함께 한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여휴만만 권리 장전

1. 기존 학교의 공간 구성은 철저하게 남성중심적이었다.
2. 학내에 여성공간은 현재 여학생 휴게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3. 여학생 휴게실은 불필요한 공간이 아닌 여학생들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4. 여학생 휴게실은 쉽게 주어진 공간이 아닌 여학생들이 힘들게 싸워 얻어낸 결과물이다.
5. 학교는 여학생 휴게실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6. 학생회기구들은 여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교에 요구할 의무가 있다.
7. 여성주의 단체들은 여성 공간과 관련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의무가 있다.
8. 여학생들은 여학생 휴게실을 잘 사용해야 하는 권리와 함께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9. 여학생들은 여학생 휴게실을 밀거름으로 삼아 더 넓은 여성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0. 여학생 휴게실 관련 작업에 있어서 중심은 그 공간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여학생들에게 있어야 한다.